

News

자문사 반대 입김이 '외국인 주주' 흔들까… 긴장하는 금융지주

중앙일보

24~25일 금융지주사 '슈퍼주총데이' 앞두고 긴장 고조… ISS의 반대표 행사 권고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 흔들릴 수 있기 때문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 사내이사 선임 반대의견 권고… 다만 업계에서는 자문사 권고와 달리, 주주 친화적 배당 정책에 대다수 외국인 투자자들이 찬성표 던질 가능성도 제기

고승범 "대출 만기연장 추가 조치… 10월 이후 상황 준비"

연합인포맥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전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고 언급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결정… "기발표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컨설팅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여력 감안한 채무상환계획 조정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 언급

5대 시중은행 모두 전세대출 조건 완화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문턱 낮추기로… KB국민은행, 오는 30일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하기로…
전세대출 신청 기간을 잔금 지급일 이후로 늘리고, 그간 제한해온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하기로… NH농협은행은 25일부터 적용

신한금융,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3대주주 된다

서울경제

신한금융지주, 신사업 확대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500억 이상 투자해 주요 주주로 참여하기로… 암호화폐 시장에 파장 를 것으로 예상
기업가치 등 투자 조건에 대한 합의는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본계약 체결 앞두어… 이르면 내달 초 계약 체결 완료… 이번 투자 완료되면 3,000억원 중반 수준 기업가치 달성을 추산

지난해 보험사 RBC 비율 205.5%, 재무건전성 악화… 이유는?

머니S

지난 15개 보험사의 RBC이 205.5%로 33.4%p 하락… 여전히 대다수 보험사들이 기본값인 100% 훨씬 상회하는 수준…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한 보험사 중심 하락세
보험사들, 금리 하락한 2012~2016년, 2018~2019년 집중적으로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면서 장부상 자본 부풀려…

한화생명 즉시연금 1심 연기… 소비자 단체 "보험금 되돌려줘야"

조선비즈

즉시연금 둘러싼 한화생명과 소비자 간 소송 1심 선고가 법원 조정 회부에 따라 연기… 소비자단체는 빨리 소비자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여러 보험사들이 항소 준비하는 모습 볼때, 한화생명도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 존재… 금감원에서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약 8,000억원~1조원 추산

한투증권, 글로벌 IB시장 잇달아 공략

서울신문

한국투자증권, 해외 현지법인 거점 삼아 IB시장 공략… 유럽 사모펀드 PAI파트너스와 손잡고 트로피카나 인수금융에 공동대표주관사로 참여
글로벌 투자은행과 함께 대표주관사로 참여해 선순위 및 중순위 대출 주관… 주관사단 중 한국 금융회사는 한국투자증권 유일… 홍콩, 인도네시아 등 현지법인들도 자체 성과

초대형 증권사, 발행어음 수익률 ↑ … 불붙은 투자자 유치 경쟁

아시아투데이

초대형 증권사들, 일제히 발행어음 수익률 올려 투자자 유치 경쟁 나서… 제로금리 시대 막 내리며 발행어음 수요 늘어난 만큼 판매수익을 IB 기초자산으로 삼으려는 전략
미래에셋증권, 다음 달 29일까지 '발행어음 투자형 종합자산관리계좌'에 우대수익률 0.4% 가산… KB증권도 지난 21일부터 CMA 수익률 상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